

三抄郡 北坪邑 三和里 出土 高麗時代 遺物 一括

鄭 良 謨

I

우리나라 全域에서 高麗磁器 및 宋磁器의 出土例가 많으나 大部分 盜掘에 의한 것이며 其外는 開墾, 각종 土木工事, 天災 또는 好奇心에 의한 無知의 所致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出土된 地域의 특성이나 遺物과 遺構의 關係遺物相互間의 연관성 등은 상고할 길이 없다.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일괄유물^①은 一九七二年 一〇月 一二日 江原道 三抄郡 北坪邑 三和一里 三和寺 뒷산에서 우연히 出土된 것인데 幸히 發見者가 바로 郡當局에 埋藏文化財로 신고하여 法的 節次를 거쳐 國庫歸屬되어 國立中央博物館에 保管케 된 것이다.

우리가 發見現場을 調査하지 못하여 확실치는 않으나 三抄郡에서 送付한 書類中에는 發見場所의 寫眞이 몇장 첨부되어 있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측할 수가 있다. 발견장소는 三和寺 뒷산의 寺刹區域內로 큰 산의 主陵線에서 갈려나온 작은 陵線에 있으며 약 八部陵線쪽의 높은 곳이다. 주위에는 大小의 自然 또는 人工切石材가 많이 散亂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古墳이 이 일대에 밀집되어 있었으며 다른 古墳들은 이미 以前에 거의 盜掘되었을 것이다.

墓制는 堅穴式 石室墳으로 땅을 長方形으로 약간 파내고 自然 또는 人工切石材로 四方으로 壁을 쌓고 그위에 커다란 三~四枚의 板石을 얹어 놓아 蓋石을 삼은 것 같다. 四方壁의 上部와 蓋石은 地面보다 높았던

것 같으며 봉분은 상당히 컸었던 것 같다. 出土遺物은 高麗磁器, 宋磁器, 土器, 靑銅器, 石器 등 多樣하나 寫眞과 報告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一個의 墓室에서 나온 一括遺物이라고 생각된다.

II

出土 申告된 遺物은 四一點이며 이를 大分하면 高麗靑磁 九點, 白磁 一六點, 土器 一點, 靑銅器 三點, 鐵製 二點(약간의 刀, 石) 一點, 宋白磁 九點 등이다.

가 高麗靑磁는 타구 一, 주전자 一, 대접 三, 盞托 三, 香爐 一點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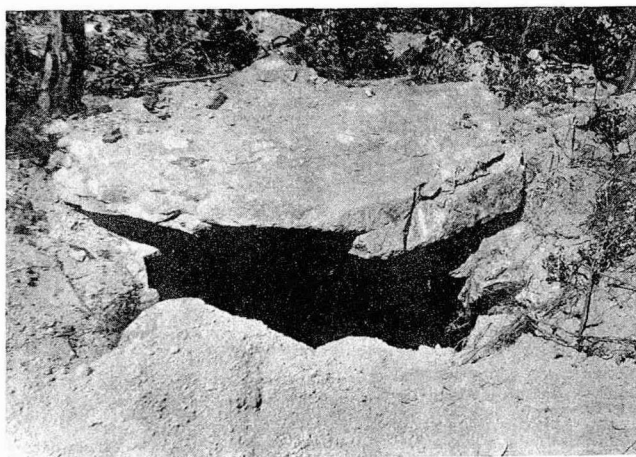
靑磁 타구(唾壺) (高 一〇・五 cm, 口徑 二・四・三 cm) 대형 타구로서 器壁이 얇고 釉, 胎가 보다 세련되었다. 釉藥에는 미세한 기포가 많으며 釉面全體의 반쯤에 氷裂이 있으며 굽은 따로 造出하지 않고 平底로 바닥의 유약을 環狀으로 굽어내고 거기에 耐火土와 모래비진흙 여섯개를 반쳐 燔造 하였으며 露胎는 鐵呈色을 나타내고 있다. 高麗十九代 明宗智陵에서 出土된 靑磁陰刻牡丹文타구(高麗陶磁の研究 野守健著 一九四四年 京都 清閑會刊, 明宗의 卒年은 一一九七年) Mr. Brundage 컬렉션 靑磁陽刻牡丹唐草文타구 등은 上盤面이 이보다 좁고 밑이 壺形으로 굽이 따로 있다.

이 타구는 一二世紀初頃 靑磁의 釉, 胎와 같으며 上盤面이 넓고 口緣에 一條陰刻帶線이 있을뿐 無文이며 밑이 壺形이나 납작하고 굽이 따로 없으며 바닥의 유약을 굽어내고 耐火土와 모래비진흙을 받쳐 燔造한 것 등으로 보아 이미 알려진 一聯의 타구보다 先行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一二世紀 初頃의 作品으로 보여진다.

靑磁陽刻雲鶴文大椽(高 四・七 cm, 口徑 一五・八 cm, 底徑 四・三 cm) 內側斜面에 主文樣인 雲鶴文을 押出型으로 나타낸 대접으로 內底에도 押出型으로 菊花瓣을 나타내었다. 雲文은 唐草와 같이 생겼으며 鶴은 頸部와 胴體가 상당히 크다. ② 유약은 녹색이 약간 짙으며 網狀의 氷裂이 있고 胎土는 精選되지 아니하였으며 釉面이 고르지 못하다. 굽을 깎



埋藏文化財發掘現場



發掘現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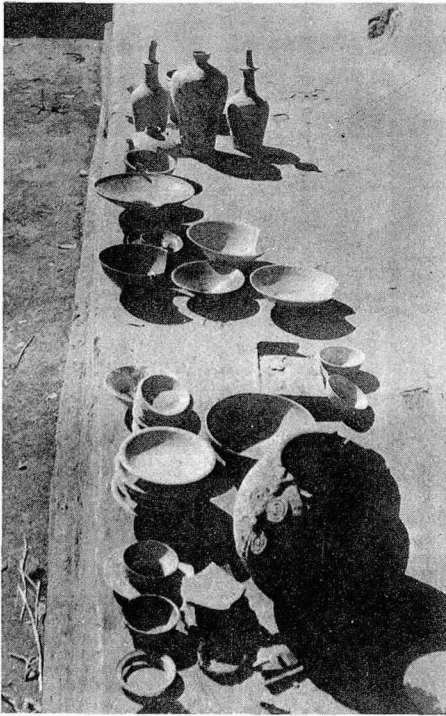
發掘作業過程

은 手法은 靑磁盛期와 닮았으나 밑을 扁平하게 깎고 耐火土와 모래비집
 눈을 세곳에 받쳐 燔造하였다. 耀州窯나 臨汝窯 계통의 대접과 비슷한
 형태로, 高麗靑磁로서는 釉藥과 胎土와 文樣이 이보다 세련된 例가 一
 二世紀 前半에 많으나 이대접은 釉藥과 文樣, 굽의 정리, 굽받침 등이
 一 二世紀 前半의 예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一 二世紀 初頃の 作品으로
 생각된다.

靑磁陰刻蓮瓣文大椀(高六·九cm、口徑一八·六cm) 龍泉窯系統의 靑
 磁에 많이 나오는 형태와 蓮瓣文^③을 장식한 대접이다. 釉藥과 胎土는
 아직 세련되지 아니하였으며 굽은 모래는 받침 굽과 흡사하나 굽다리 밑
 을 扁平하게 깎아내고 유약을 흠어내고 耐火土 모래비집 눈 셋을 받쳐

燔造하였다. 內底는 圓面으로 깎아내고 外面에 蓮瓣文을 二重으로 施文
 하였는데 蓮瓣의 등날을 세웠다. 이와 비슷한 형태와 蓮瓣文을 한 대접
 중에서 이보다 훨씬 세련 발친 것^④이 一 二世紀 前半에 그 例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대접도 一 二世紀 初頃の 作品으로 생각된다.

靑磁대접(高八cm、口徑一七cm、底徑六cm) 굽이 없는 平底의 바릿
 대 형식 대접으로 全面에 施釉하고 바닥의 유약을 環狀으로 흠어내고
 耐火土 비집눈을 받쳐 燔造하였다. 釉藥용융상태가 不良하여 유약과
 태토의 질등을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바릿대형 대접은 一 二세기 전반기
 의 靑磁、鐵釉、^⑤鐵彩등에 그 예가 있으며 이대접은 一 二世紀 前半頃の
 제작으로 생각된다.



發掘된文化財

靑磁陰刻蟠龍文蓋托(二點)(高四cm、口徑八cm、底徑六cm、高四·二cm、口徑六·七cm) 잔대가 參點인데 二點은 같고 一點은 약간 다르다. 同一한 形態의 二點中 一點은 釉藥용융상태가 不良하여 釉、胎의 質과 文樣등을 알 수 없다. 하나는 釉藥과 胎土가 모두 精選、洗鍊된 作品으로 釉藥은 一二世紀 前半期에서 氷裂이 없는 釉藥中 最高의 아름다운 翡色을 나타내고 있다. 文樣은 잔대 周緣에 雷文帶를 두르고 內側에 蟠龍두마리를 配하였으며 蟠龍의 모양이 類例가 드문 秀作이다. 잔대의 전이 약간 위로 휘어올라서 扁平한것 같이 보이며 굽이 낮고 조금 넓고 잔받침의 형태도 넓고 시원하다. 굽 밑의 유약을 훑어내고 耐火土 눈을 받쳐 燻造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잔대는 一世紀로부터 二世紀 前半까지 있으며 굽의 형식 耐火土 눈 잔받침의 양식등 一二세기 前半에서는 古式의 것으로 미루워보아 二세기 前半에서는 앞서는 시기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靑磁蓋托(高四cm、口徑八·三cm) 前者보다 釉胎가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酸化燻造로 전의 밑 一部를 제외하고는 暗褐色을 머금고 釉藥에 網狀의 氷裂이 있다. 前者보다 굽이 좁고 약간 높으며 전이 위로 많이 휘어 올랐고 굽다리 밑의 유약을 그대로 두고 耐火土 눈을 받쳐 燻造했으며 잔받침도 작다. 이러한 양식도 一세기부터 二세기 初頃까지 있으므로 이 잔대도 二세기 初頃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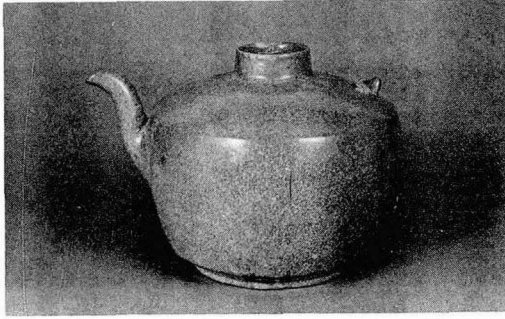
靑磁주전자(高一四·三cm、口徑四·三cm、底徑九·八cm) 연속되는 유연한 線을 지닌 주전자가 아니고 낮은 口部가 있고 여기에서 꺾여 肩部가 되고 다시 밑으로 꺾여 胴部가 되며 다시 안으로 꺾여 굽에 이른다. 컷대는 胴部 뒷부분에 짧게 붙었고 손잡이는 위가 肩部에, 밑이 胴部에 붙어 있다. 이러한 양식의 주전자^㉔는 一세기로부터 二세기 초경에 걸치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 주전자도 二세기 初頃의 作品으로 생각된다.

肩部에 陰刻으로 唐草文帶 같은 것이 있으나 釉藥용융상태 不良으로 釉、胎모두 不明이며 굽다리 밑의 유약을 대충 훑어내고 耐火土 모래 비잔눈을 받쳐 燻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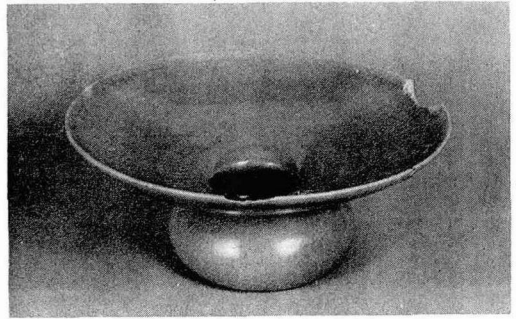
靑磁陽刻饗餐文香爐(高一·五cm、口徑一三·六cm) 一二世紀 前半에 饗餐文을 單純化해서 押出型 陽刻으로 장식한 香爐는 그 수효가 비교적 많으며 釉、胎、器形등이 보다 세련되고 있다.

이 香爐는 器形이 드문 圓筒形(위가 넓고 밑이 좁다)으로 施文도 특이하다. 口部위에 方形의 장식이 있고 口部는 四角形 진으로 되고 胴部는 圓筒形이고, 底部는 둥글고, 胴部와 底部 中間에 三足を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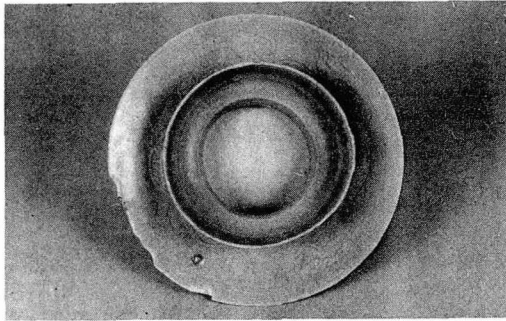
口部인 전 側面에는 陰刻으로 唐草文帶를 나타냈고 胴部 全面에 약간 의 雷文을 地文으로 곁들여 饗餐文을 押出形 陽刻으로 나타냈다. 이 文樣은 雷文으로 가득찬 위에 饗餐文을 장식한 一般的인 香爐와 달리 主文樣이 天馬(또는 龍·虎)를 單純化하고 變形시켜 나타내는데 약간 결들여 雷文을 장식하였을 뿐이다. 釉、胎、器形 등이 모두 고도로 세련된 것으로 여기 소개하는 一括靑磁中 유일하게 밑에 硃砂色을 받쳐 燻造한 것으로 보아 二世紀 前半頃의 作品으로 생각된다.



青磁注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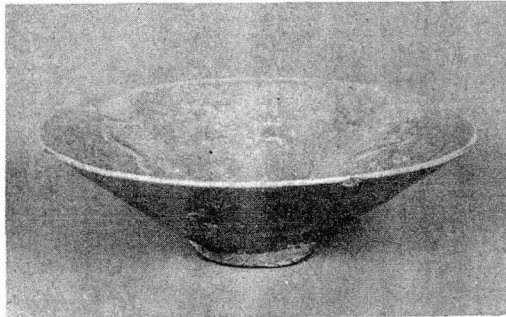
青磁唾具



青磁陰刻蟠龍文盞托



青磁陰刻蓮瓣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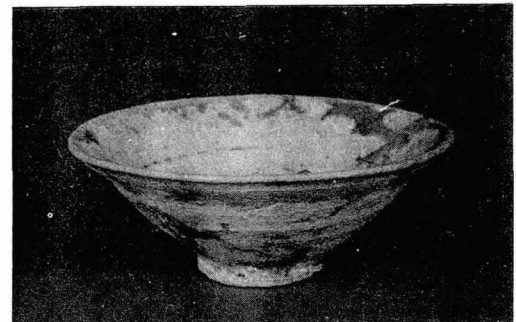
青磁陽刻雲鶴文大椀



青磁大椀



右의 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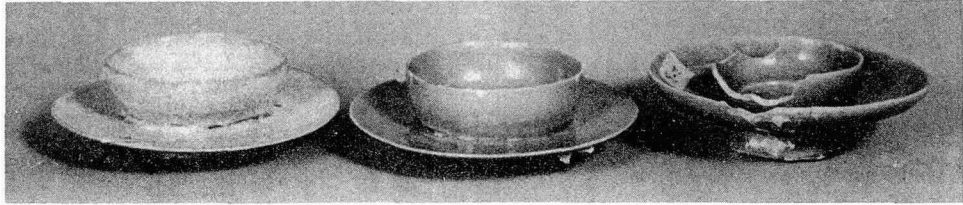
白磁大椀



靑磁陽刻龕龕文香爐



白磁鐵畫唐草文梅瓶



靑磁盞托

나 高麗白磁는 梅瓶一點, 盞一一點, 淨瓶二點, 缸一點, 内접一點 등이며 그特徵은 다음과 같다.

靑磁와 함께 상당량의 白磁가 出土되었으며 白磁의 質은 모두 똑 같다. 胎土와 釉藥이 密着되지 아니하여 많이 剝落되었으며 釉色은 暗褐色을 머금고 있으며 微細한 水裂이 있다. 胎質은 斬質로 거치른 石膏와 비슷하여 釉藥이 剝落된 곳은 白土化粧한 것과 같이 보인다.

白磁鐵畫唐草文梅瓶(高 二八·二cm、口徑 五·七五cm、底徑 一〇·九cm) 口部는 다른것에 비하여 오통하며 肩部와 上胴部가 豐滿하지 아니하고 肩部와 胴部가 곡선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잘 살펴보면 조금 꺾였다가 연결되었다. 下胴部에서 底部에 이르는 曲線은 굴곡이 없고 바닥이 약간 퍼졌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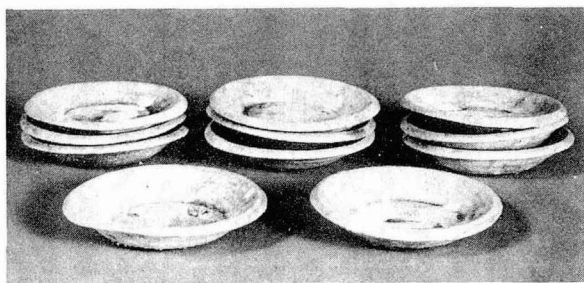
文樣은 胴部 兩面에 立飾 唐草折枝를 하나씩 그리고 肩部와 上胴部에 걸쳐 胴部와 똑같이 생긴 唐草折枝를 옆으로 그렸으며 文樣위의 釉藥은 거의 剝落되었고 釉藥이 剝落되지 아니하였어도 發色은 아주 不良하며 釉藥에 鐵分이 흡수되어 퍼져버리고만 상태가 대부분이다.

굽은 안을 깎아 내었으며 白色耐火土를 받쳐 燻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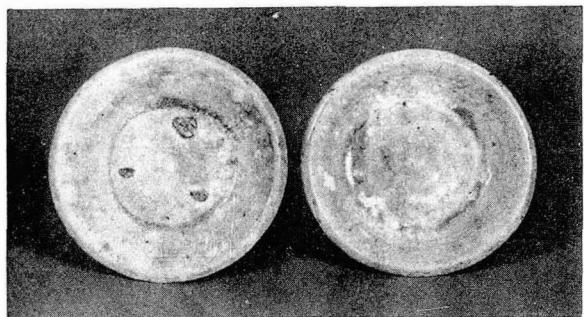
胴下部 굴곡의 變化가 거의 없는 梅瓶은 靑磁의 경우 象嵌이 施行되기 以前^⑦인 一世紀로 부터 二世紀 初頃に 있으므로 이 梅瓶도 늦어도 二世紀 前半頃の 제작으로 생각된다.

白磁盞(一一點)(高 二cm 内外、口徑 九cm 内外) 釉·胎는 前者와 똑같으나 盞시는 外面의 釉藥이 얇게 施釉되었고 釉藥의 剝落이 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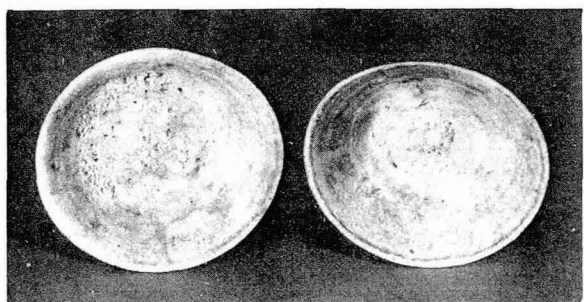
盞시의 口緣은 아주 꺾여 外反되어 外緣에서 등글게 말아 붙였으며 内底 周緣을 한번 깎아내어 側斜面의 밑과 内底 周緣이 약간 턱이 되고 區分이 뚜렷하다. 굽은 平底로 어물어물 마감해서 일정치 않고 평탄하지 못하다. 밑바닥의 유약을 적당히 훑어내고



白磁 접시



上의 내부



上의 굽



白磁鐵畫唐草文壺



白磁淨瓶

뿐만 磁砂質의 가는 모래를 받쳐 播造하였으며 一一個中 三個의 內底에 灰色胎土비점 자국이 셋씩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여럿을 포개 놓고 播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시의 형태는 一世紀경 조잡한 청자에 그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접시도 一世紀 초경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白磁淨瓶(二點) ① 高三·一cm, 底徑 九cm, ② 高二八·七cm, 底徑 九·三cm) 釉·胎는 前者와 같은 것 같다. 溶滲狀態 不良으로 釉·胎가 모두 실어서 分明치 아니하고 釉藥은 不完全한 상태로 거의 모두 剝落되었다. 器形은 다른 一括 白磁와 같이 이것도 세련되지 않아서 물레자국이나 컷대와 口部를 붙일 때 치닥치닥 白土를 붙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京畿道 開豐郡 嶺北面 古里 宮女洞 古墳에서 出土된 承安三年(一一九八) 銘 宋子淸 墓誌와 함께 出土된 白磁淨瓶^㉔과 비슷한 형태이나 이淨瓶은 器面이 훨씬 거칠고 컷대가 길고 옆으로 튀어나왔으며 컷대의 口部가 梅瓶 口部같이 생겼으며 크고, 頸部위의 圓板과 口部밑의 圓板이 꼭 맞지 아니하고 頸部위의 圓板이 크고 잘대기 같이 되고 口部밑의 圓板이 작아서 그위에 그냥 얹혀있는 셈으로 적당히 붙여 놓았으며 口部の 길이는 十二世紀 前半에 세련된 靑磁淨瓶보다는 훨씬 짧고 宋子淸墓 出土淨瓶보다도 짧다. 이러한 형태의 정병은 대체로 十一世紀頃의 청자에 그 예가 있으며 宋子淸墓 出土淨瓶보다도 세련도가 훨씬 못하므로 十一世紀 前半頃의 작품이라 생각된다.

白磁鐵畫唐草文缸(高 一三·一cm, 口徑 一九·五cm, 底徑 一一·三cm) 釉·胎는 梅瓶 접시 등과 똑같다. 器形은 방구리 형태로 十一世紀에 이와 같은 粗質의 白磁나 粗質 靑磁에서 볼 수 있는 缸과 달리 口部는 원편하고 넓게 밖으로 접어 붙였고 口部 밑에서 肩部, 胴下部에 이르는 線이 그대로 동그스름하다. 일반적인 예는 口緣은 동글게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肩部가 과장되어 크고 넓게 퍼졌다가 胴部로부터 좁아져 밑이 훨씬 좁은 형태를 하고 있다. 文樣은 唐草折枝를 옆으로 胴部 네 곳에 그렸으며 바다는 平底로 白色 耐火土를 받쳐 播造하였다. 다른

一括 遺物과 釉·胎가 꼭 같고 唐草文樣도 똑같으므로 亦是 十二世紀 前半頃의 作品이라고 생각된다.

白磁대접—耀州窯나 臨汝系統^㉕의 대접과 흡사한 모양이며 口緣이 넓고 시원하게 外反되었으며 內面 口緣 밑에 一條의 陰刻帶線이 있고 內底의 周緣은 동글게 깎아내였으며 굽은 비교적 크고 힘차게 깎아내었다. 釉·胎는 前者와 꼭 같으며 이러한 형태의 대접은 十一世紀로부터 十二世紀 初葉에 걸치는 時期에 많으므로 이 대접도 十一世紀 初나 前半頃의 제작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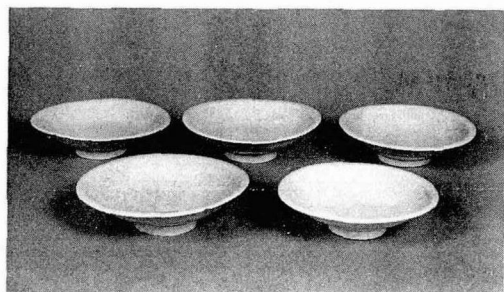
다 宋白磁는 蓋 二點, 접시 五點, 대접 二點이며 그特徵은 다음과 같다.

白磁陽刻蓮花文蓋(二個)—① 高三·五cm, 口徑 八·二cm, 底徑 二·三cm, ② 高三·八cm, 口徑 九cm, 底徑 二·一cm) 定窯風의 蓮花文^㉖을 內面(底面中心으로)에 장식한 蓋으로 質은 硬質이며 釉藥은 얇게 施釉되고 水裂이 없고 酸化播造로 淡褐色을 머금고 있다. 口部가 약간 벌어진 이 蓋은 굽이 아주 작고 굽나리의 斷面이 四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口緣部의 釉藥을 훑어내고 所謂 伏燒法으로 播造하였다. 北宋代 定窯産으로 생각되며 文樣은 所謂 刻花·劃花手法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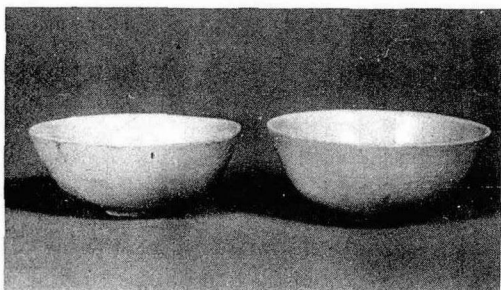
白磁陰刻草花文접시(五개)—(高 四·四~三·三cm, 底徑 五·四~五·八cm, 口徑 一四·二~一五·五cm) 前述한 蓋보다 더욱 硬質이고 堅緻한 白磁로 釉藥은 透明하고 얇게 施釉되었으며 水裂이 없다. 器形은 口部가 동글게 外反되었으며 굽은 약간 높고 斷面은 截頭 三角形을 지꾸로 놓은 형태로 밑이 角이져 있다. 文樣은 所謂 劃花·刻花手法으로 나타냈으며 定窯系統^㉗의 文樣과 흡사하다.

釉藥은 굽안 바닥에는 施釉가 없으며 五개중 네개가 酸化播造된 듯 卵白色으로 따뜻한 질감이 있으며 한개만이 還元播造된 듯 淡靑色을 머금고 있다. 亦是 文樣, 釉調 등으로 보아 北宋代 定窯系의 白磁라고 생각한다.

白磁陰刻唐草文대접(二개)—① 高 七·一cm, 口徑 二〇·一cm, 底徑 六cm ② 高 五·四cm, 口徑 一九cm, 底徑 五·八cm) 器壁이 아주 얇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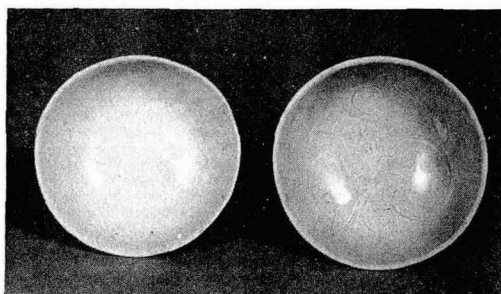
白磁陰刻草花文접시



白磁陽刻蓮花文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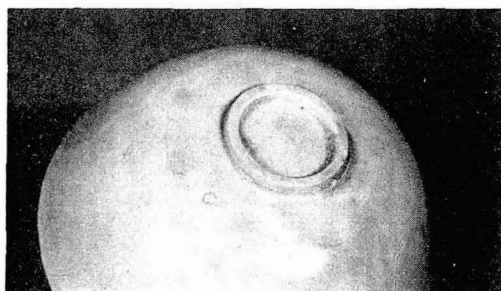
上の 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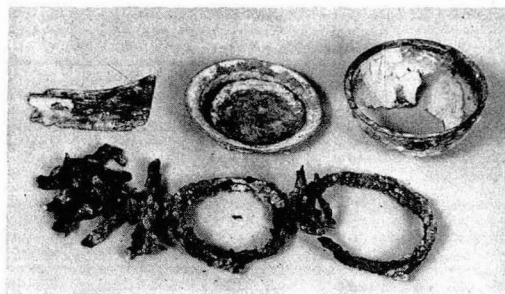
上の 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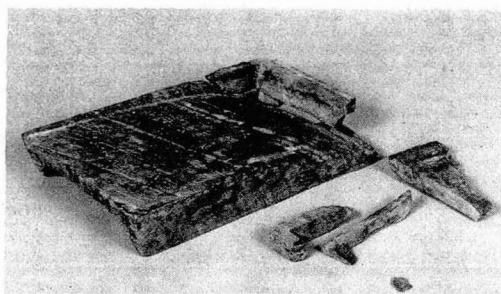
上の 굽



上の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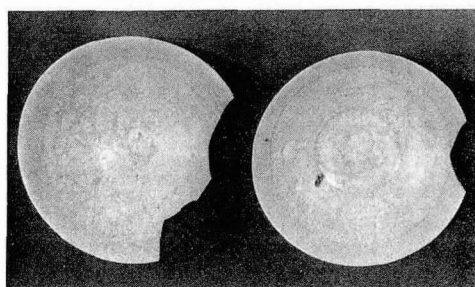
靑銅器破片



「風」字 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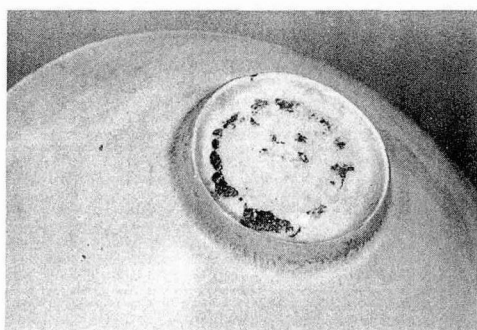
白磁陰刻唐草文大椀



同 左



土器壺



上의 굽

半透明의 白磁대접으로 釉・胎의 質은 두개가 똑같으나 內底의 圓面이 하나나 넓고 하나는 좁으며 文樣에도 약간의 相違點이 있다. 文樣이 하나나 內底의 넓직한 圓面까지 걸쳐서 두童子가 唐草속에서 회룡하고 있으며 하나는 側斜面 文樣은 두童子가 唐草속에서 회룡하고 있으나 內底의 좁은 圓面에는 따로 花文같은 것이 있다. 文樣은 押出型으로 대체의 모양을 陽出해 놓고 윤곽선과 內線을 에리한 線刻으로 나타내었다. 釉藥은 어두운 淡靑色을 머금어서 南宋代의 影靑같이 淡靑色으로 맑고 명랑하지 못하나 透明하고 약간 두껍게 施釉되었으며 굽안쪽 바닥에 단 施釉가 없다.

器形은 側斜面이 굴곡없이 시원하게 죽 펴였으며 굽은 斷面이 內角이 좁은 三角形이며 아주 예쁘다.

이 대접과 똑같은 釉, 胎, 文樣, 器形의 대접은 우리 나라에 發見例가 더러 있다. ② 器形이 힘이 있고 文樣이 예리하며 다른 北宋代 遺物과一括出土品이며 釉藥이 影靑系統이나 典型的 南宋影靑과 相違點이 있는 것으로 보아 北宋代 景德鎮系의 影靑대접이라고 생각된다.

라 이외에 高麗 土器一點, 靑銅器具片數點, 鐵製品數點, 石硯一點 등이 있으며 그特徵은 다음과 같다.

土器壺(高二三cm、徑十六cm) 口部가 납작하고 胴部가 둥그스름하고 平底인 항아리로 肩部에 二條의 波狀文이 있고 胴部中央에도 雙線內에 一條의 波狀文이 있으며 肩部와 胴部에 걸쳐서 土棒으로 말아서 만든 嬰珞形 장식을 양쪽에 큼직하게 붙였다.

還元燻造의 灰黑色으로 質도 硬質로 嬰珞文樣 등으로 보아 高麗前期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靑銅器破片—剃刀 前部(長〇・八五cm)와 鏝의 윗부분(高三・五cm、徑七・七cm)과 小形 받침 접시 파편들이 있다.

鐵製品

木棺 장식품이라고 생각되는 鐵銀 二개와 棺釘이라고 생각되는 鐵製片 등이 있다.

風字硯(高三・三cm, 一九・三×二一・五cm)

質이 물든 頁岩系統의 石硯으로 頸部가 약간 좁고 下部가 약간 넓으며 硯面도 위가 약간 넓고 밑이 약간 좁으며 特別히 頸部와 下部는 上下의 차가 현저해서 縱側面이 뚜렷히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硯面은 먹을 가는 면과 물을 담은 곳이 區分없이 자연스런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닥은 이와 反對로 뒤끝부터 파내었으며 벼루전은 頸部와 兩則에만 있고 전위에 아주 가는 음각선을 주연에 둘렀으며 下側面緣部에는 二條의 같은 線을 그었다.

III

專門學者에 의하여 調査된 것은 아니지만 一括遺物이 이만큼 수습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遺物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략적인 고찰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高麗靑磁는 釉, 胎, 器形, 燔造手法으로 보아 十二세기 前半에 해당 하는 시기이며 아직 北宋靑磁의 모습이 器形에 조금씩 남아 있으며 康津窯靑磁가 대부분이다.

高麗白磁는 釉藥, 器形으로 보아 역시 十二世紀 前半에 해당 하는 시기이며 扶安 柳川里産 白磁와는 釉, 胎 등이 현격한 차가 있으므로 다른 地方産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粗質白磁는 이외에도 이때까지出土例가 상당히 있으나 그 窯地는 아직 不明이며 初期 白磁窯地로서는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만이 조사된 바 있다.

宋白磁는 釉, 胎, 器形, 文樣 등으로 보아 北宋代 定窯와 景德鎮系統의 白磁로 高麗磁器와 비슷한 시기인 十一世紀末부터 十二世紀 前半에 해당 하는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其他 靑銅, 鐵製, 石製品, 土器類도 一括遺物이므로 高麗磁器와 같은 十二世紀 前半의 作品이라고 생각한다.

註

- ① 一九七二年十一月二十五日 三抄郡에서 一件書類와 함께 鐵道便으로 送付한 것으로 신고인 성명은 진규, 진중남 二人이고 주소는 三抄郡 北平邑 三和一里 신고일인 一九七二年 一〇月 一八日이다.
- ② Oriental Ceramics The World's Great Collections Volume 10 The Freer Gallery of Art, 一九七五年 東京 講談社刊
- ③ 單色(圖版二二五)靑磁劃花雲鶴文碗(高麗時代)은 十二世紀 前半에서는 앞서 시기라고 생각되며 여기 소개하는 매질의 문양과 형태가 거의 같다. 이러한 雲鶴文이 古式의 雲鶴文으로 十二世紀 初頭부터 發展한 것이라 생각된다.
- ④ ③ 이러한 蓮瓣文은 定窯白磁에도 비슷한 예가 있으며 器形도 비슷한 예가 있다. Oriental Ceramics The World's Great Collections Volume 5 The British Museum 一九七四年 講談社刊 單色圖版 五六・五七參照.
- ⑤ 「韓國美術 二千年」展示圖錄 一九七三年 서울 國立中央博物館刊 圖版一八四參照.
- ⑥ 「韓國美術 二千年」展示圖錄 一九七三年 서울 國立中央博物館刊 圖版二八九參照.
- ⑦ 朝鮮古蹟圖譜 第八一九三三年 朝鮮總督府 九九八面 圖版三四五四參照.
- ⑧ 朝鮮古蹟圖譜 第八一九三三年 朝鮮總督府 九九五面 圖版三四四七參照.
- ⑨ 高麗陶磁의 研究 野守健著 一九四四年 京都 清閑舍發行 四二~四三參照.
- ⑩ 耀瓷圖錄 陝西省博物館編 一九五六年 北京 中國古典藝術出版社刊 圖版一四・一五・一六・一七參照.
- ⑪ Oriental Ceramics The World's Great Collections Volume 10 The Freer Gallery of Art 一九七五年 講談社刊 單色圖版三七・三八參照.
- ⑫ 同書 Volume 6 Victoria and Albert Museum 單色圖版 九六參照.
- ⑬ 朝鮮古蹟圖譜 第八一九三三年 朝鮮總督府 九九〇面 圖版三四三七參照.
- ⑭ Oriental Ceramics The World's Great Collections Volume 1 Tokyo National Museum 一九七六年 講談社刊 原色圖版 十三參照.
- ⑮ 同書 Volume 5 The British Museum 一九七四年 原色圖版 二六參照.
- ⑯ Oriental Ceramics The World's Great Collections Volume 1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一九七五年 講談社原色圖版 五・六參照.
- ⑰ 朝鮮古蹟圖譜 第八一九三三年 朝鮮總督府刊 一〇二二面 圖版 三四九四・三四九五參照.
- ⑱ 世界陶磁全集 第十卷 一九五五年 東京 河出書房刊 解説 二一九面 圖版 八〇 北宋靑靑鉢 參照.

(국립중앙박물관 수석학예연구관)